

보도시점 2026. 9. 1.(화) 배포 즉시 배포 2026. 9. 1.(화)

고위험군 대상 독감 백신 NIP 물량(1,233만 도즈) 적기 확보.. 국가 예방접종 차질 없이 준비 중입니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2026년 9월 1일(화) 조선비즈, 「독감백신 NIP 차질... 사노피 50만도즈 핑크에 민간 물량 전환」 보도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9.1.).

□ 설명 내용

○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국가예방접종(NIP)을 시행을 앞두고 백신 공급 계획에 차질」와 관련하여

- 정부는 '26-'27절기 국가예방접종(65세 어르신, 생후 6개월~만14세 어린이, 임신부 등)을 위해 약 1,233*만 도즈의 백신을 확보하였고 국가예방접종 일정에 맞추어 차질없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 의원급 소아청소년과는 민간개별구매방식으로 별도 구매 후 NIP접종에 사용

○ 「사노피는 백신 50만 도즈를 확보하지 못했다」와 관련하여

- 사노피社の 사정으로 초기 공급물량이 납품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NIP 백신 적기 공급을 위해 조달 물량을 녹십자社로 대체하였으며, 사노피社가 생산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총 물량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 「민간 시장 물량을 빼 NIP 물량으로 메운 것이라 전체 백신에 수급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와 관련하여

- 정부 조달 구매 물량을 비롯한 우리나라 백신 공급 총량에는 차이가 없으며, 전체 백신 수급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아울러 민간시장에 보다 원활한 백신 공급을 위해 일부 제조사는 백신 추가 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재 국내 의사 회원들이 NIP 대상 백신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와 관련하여
-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소아 NIP백신은 약 200만 도즈로, 제조사 확인 결과 백신 적정 배분 시 국가예방접종에 필요한 물량 공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백신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공급방식이 병행되고 있으며, 그 외 정부가 접종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민간 의료기관이 직접제조/수입사 등으로 부터 백신을 확보하여 유료로 접종을 시행합니다.
 - 대부분 백신은 국가예방접종 일정에 맞추어서 출하승인 및 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일부 온라인 주문 플랫폼의 일시 품절이 곧 전국 단위의 백신 부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개요>

구분	백신 공급방식	접종 대상	접종기관	'26-'27절기 백신 구매	접종시기
국가예방 접종(NIP)	정부조달구매	65세이상 어린이 (생후6개월~만13세) 임신부 지자체사업	보건소 위탁의료기관 (병원급 소아청소년과 포함)	1,233만도즈	(어린이)'26.9.21~'27.4.30 (어르신)'26.10.12~'27.4.30
	정부비용상환	어린이임신부	의원급 소아청소년과	약 200만도즈	
민간 (Non-NIP)	민간직접구매 (정부지원없음)	국가예방접종대상 외 접종 희망자 (건강한 일반성인)	-	-	-

- 「일부 도매·유통사들이 중간 이윤과 영업 실적을 쌓기 위해 수급 불안을 키워 불공정 유통 행위를 하고 있다.」와 관련하여
- 이와 관련 질병관리청은 국민들의 원활한 국가예방접종을 위하여, NIP 백신 관련 불공정 행위 확인 시 복지부 및 식약처 등과 적극 협력하여 불공정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담당 부서	의료안전예방국 백신수급과과	책임자	과 장	이승목 (043-719-6810)
		담당자	사무관	홍미숙 (043-719-6812)